

# 무주택 서민 공공주택 분양에 ‘뺏다방’ 기승

### LH 광주 효천2지구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불법 거래 전매 제한 불구 3000만원 웃돈... LH가 투기조장 지적도

1년의 전매 제한이 걸린 공공분양 주택 분양권이 당첨자 발표일에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법 투기 조장행위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청약 공고일 이전에 주소를 이전하면 외지인도 청약이 가능한 법의 맹점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LH의 효천2지구 건본주택은 불법 분양권 전매로 몸살을 앓았다. LH가 지난달 말 공공분양한 천년나무 5단지 당첨자 발표일이었던 이날, 건본주택 뺏겼던 삼삼오오 모인 이른바 ‘뺏다방’ 관계자들로 북적였

는데도 LH 공사 직원들은 그 현장을 보고만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천년나무 5단지는 지난달 30일 전용면적 84㎡의 단일평형 521가구가 분양됐으며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분양가는 2억4000만원 수준. 무주택자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3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됐지만, 불법 전매를 통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현장에는 광주시민보다 수도권 등 외지에서 몰린 투자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게 광주시지부의 전언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뺏다방과 합작한 투자 수요가 공공분양 주택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 지부장은 “분양권 전매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투자자나 뺏다방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전매를 일삼았다”며 “1순위 분

양이 안되면 3순위에서 분양하면 되는데도 LH는 자사 아파트의 가치상승을 위해 1순위 마감을 홍보하고, 투기 세력에게 장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공공 목적의 주택 공급인 만큼 지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는 청약 공고일 이전에 주소지만 이전하면 청약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당첨자 가운데 외지인이 30~40%에 이르렀다는 점도 광주시민에게 제공될 공공주택이 외지인의 투자목적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LH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일에 부동산 관계자들이 현장에 많이 나왔지만 뺏다방이라도 단정할만한 기준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창립 46돌을 맞았다. 광주은행은 2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김장학 행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선배 직원, 광운리더스클럽 회장단과 임직원, 고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1968년 11월20일 자본금 1억5000만원, 점포 1개, 직원 50명으로 출발한 이후 46년 만에 자산규모 22조 원의 대표적 지방은행으로 성장했다. 김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6년간 광주은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창립 46돌을 맞았다. 광주은행은 2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김장학 행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선배 직원, 광운리더스클럽 회장단과 임직원, 고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1968년 11월20일 자본금 1억5000만원, 점포 1개, 직원 50명으로 출발한 이후 46년 만에 자산규모 22조 원의 대표적 지방은행으로 성장했다. 김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6년간 광주은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58.04 (-8.83)

금리 2.16%(-0.02)

코스닥 539.93 (-0.91)

환율 1115.10원 (+8.80)



광주은행 창립 46돌

광주은행이 창립 46돌을 맞았다. 광주은행은 2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김장학 행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선배 직원, 광운리더스클럽 회장단과 임직원, 고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1968년 11월20일 자본금 1억5000만원, 점포 1개, 직원 50명으로 출발한 이후 46년 만에 자산규모 22조 원의 대표적 지방은행으로 성장했다. 김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6년간 광주은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교대 금호어울림’ 전본주택 문전성시

지난 14일 문을 연 금호건설의 ‘광주교대 금호어울림’ 전본주택이 방 문객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사진> 이 단지는 광주 북구 풍향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금호건설이 상무지구 ‘갤러리303’ 이후 6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물량이다.



교대 금호어울림은 지하 2층~지상22층, 12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총 96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9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 가구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이중 전용 면적 ▲59㎡A 22가구 ▲59㎡B 31가구 ▲71㎡A 70가구 ▲71㎡B 25가구 ▲84㎡A 321가구 ▲84㎡B 26가구 ▲84㎡C 86가구 ▲84㎡D 13가구 ▲84㎡E 4가구 등을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 초반대로 책정돼 실수요자 및 투자자의 관심이 주목된다. 청약접수는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가 위치한 북구 풍향동은 광주 8학군 밀집지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주교대와 부설초교가 있으며 동강대와 풍향초, 두암초중교, 동신여중교, 동신중교 등이 도보거리에 있다. 또 교통환경도 잘 갖춰져 KTX 광주역이 가깝고 필문대로를 통해 광주 내외곽 진출입이 용이하다. 이밖에 제2순환도로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호남고속도로 문흥IC, 동광주IC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생활환경도 좋다. 이마트와 서방시장, 말바우시장 등 재래시장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NC백화점, 북구청, 두암체육공원, 고등법원 등이 인근에 있다. 전본주택은 광주역 인근 신안사거리(북구 신안동 131-1)에 있다. 입주는 2017년 예정이다. 문의(062-526-65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2014 광주·전남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20일 오전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서 개막했다. 박철희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과 류봉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등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전, 서울 삼성동 부지 놀려야 하나

#### 현대차 이전까지 9~10개월 비워 본사 이전 완료 앞두고 활용 고민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남겨 두고 나주로 이사를 시작했지만 내년 9월 현대차그룹에 소유권이 넘어가기까지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비워둘 수밖에 없어 고민에 빠져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 달 1

일부터는 나주 신사옥에서 본사 직원 1500여명 전원이 근무를 시작한다. 신사옥 개청식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지만 업무는 그 전에 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7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해외 사업 파트 일부 인력은 당분간 삼성동 사옥에 남게 되지만 잔류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옥을 다 비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 주인이 될 현대차그룹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기는 부지대금 완납 시점인 내년 9월25일이다. 여기에서 한전의 고민이 생긴다. 매각가가 10조5500억원에 달하는 노른자위 땅을 9~10개월간 ‘놀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으려면 임차인을 구해야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만 건물을 빌려 쓸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한전은 현대차그룹에 내년 9월까지 한전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했다. 현대차 측은 한전 측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 1~2곳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

차 관계자는 “계열사를 이전하려면 기존에 임대한 건물과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전과 단기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년 9월 한전부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면 계열사를 입주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전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건물을 임대할 의향이 있는 다른 업체도 함께 물색 중이지만 현대차그룹의 임대 방안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특수경매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2~3명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3억5000만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우리공인중개사 김종범  
친절상담 H. 010-8589-5500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사정상급매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 수리  
시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5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주인직매 H.010-3180-8900